제각각 색과 향으로 법의 꽃 피우세

인류의 화합을 위해서 공생의 연등을 켭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 태중(胎中)에 잉태하사, 10개월 후 오른 쪽 옆구리로 금빛 몸을 나투셨도다.

사방으로 성큼 성큼 일곱 걸음 한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 (天上天下 唯我獨尊)

장하고 장하십니다.

부처님의 강생(降生)은 법계만유의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시현(示現)입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의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인류의 화합과 공생(共生)의 연등(燃燈)을 켭시다.

금년, 전(全)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대처(對處)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고 과학기술의 무력(無力)함이 드러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로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인간과 자연, 유정과 무정이 우리와 유기적(有機的)관계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와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모든 인류들이여!

나고 날 적마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 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이 지속되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밝은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경영에 앞서가고 진리의 지도자가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생이 될 것입니다.

필경에 부처님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자 할진대,
이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천봉과 만 봉 속으로 들어감이로다.

화엄불국토로 장엄해 나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나라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룸비니 동산에서 시작된 봄소식은 온 천하를 꽃피웠습니다. '괴로운 세상을 평온하게 하리라(三界皆苦我當安之)' 는 탄생일성은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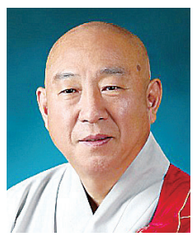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윤달 4월 초파일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한 모든 것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불교계는 공의를 모은 끝에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교계의 최대의 축제인 연등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윤달 4월 초파일에 법요식을 봉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서 윤달 4월 초파일까지 스님들은 절에서, 신도는 가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았던 결정들은 부처님의 탄생게에 입각한 모든 불자들의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의 봉축법요식은 온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세계가 성취될 것입니다.

동고동락으로 코로나 극복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내시느라 얼마나 어려움과 노고가 크신지요. 그래도 묵묵한 마음과 꿋꿋한 정신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정신에 부처님의 명호로 무한한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계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코로나19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자는 마음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과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해보다 뜻 깊고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3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하고 탄생게(誕生偈)를 읊으신 것도 결국은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자는 데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맑게 소멸돼 경제회생과 함께 국민 모두가 이고득락(離苦得樂)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축 환희로 일체질병 소멸하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코로나 19' 의 고통이 있는 곳에 부처님 오신 뜻이 더욱 밝게 전해지고, 경제불황과 대립 갈등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더욱 분명히 전해지도록 오색등을 높이 들고 칠보등을 장엄합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일체중생이 원만 덕상을 구족 하였음을 설하시고, 만 생명이 청정한 법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방세계가 부처님의 국토요 육도중생이 부처님의 분신이니, 우리 사는 이곳이 보리도량이요 우리 사는 이 순간이 성불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병의 공포로 어수선하지만 부처님 정법은 오히려 오탁악세를 향해 더욱 밝고 우렁찹니다.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을 밝히고, 삼악도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을 펼치며 일체중생의 복락과 해탈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합시다.

중생이 아픈 곳에 보살이 아프고 보살이 아픈 곳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 더욱 뚜렷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개고 아당안지' 의 탄생게가 바로 그 뜻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병고가 사라지고, 일신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성취되니 우리 모두 오색등의 마음 밝혀 시방삼세의 무명을 걷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일체 질병이 소멸하고,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서원과 정진으로 탐진치 물리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았지만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축의 환희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감염자를 양산하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울함에 갇혀 꽃 대궐, 봄 마중을 할 계절마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전통 봉축행사도 한 달여나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때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손길을 서로서로 내밀었습니다.

극한의 위기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돕는 마음으로 희망을 싹틔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키운 새 희망은 점점 더 밝은 빛이 되어 보다 넓은 세상을 비추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길이 됐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합시다.

우리들의 서원과 정진으로 탐진치를 물리치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을 열어갑시다.

덕성 넘쳐 해탈 기쁨 즐기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없는 자비와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무명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 구족한 지혜를 인간의 몸으로 열어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스스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고통의 물길을 건너서 무명의 바람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상생의 이해와 즐거움이 넘치고, 장도(長途)의 걸림 없는 부처님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 우리들에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 되게 하소서!

불자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움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성이 넘치도록 하여 해탈의 기쁨을 알아 갑시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진리가 따로 없듯이 산하대지가 참 생명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대천세계가 법신체이며 우리들의 본래면목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오십니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오심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니다.

세상을 자비로 거두시는 여래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오십니다.

윤회와 생사의 세계는 불난 집과 같아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니
고통 속에서도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끈질긴 집착과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임을 깨달아
인연으로 만난 중생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연꽃 피워내는 보살의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불심으로 견디며 세계평화와 국운 융창을
정성을 다하여 발원하며 기쁨과 감사의 연꽃 등 밝혀
거룩하신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실천서원으로 정진합시다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사랑 · 나눔 · 행복 ·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불교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대자비의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慈)는 한량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요, 미워하거나 성내지 않는 마음이며, 비(悲)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오,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자비심의 꽃으로 온 세상을 장엄한다면 이 자리가 불국토요, 화엄의 세계요, 극락정토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이웃에 자비의 꽃을 피워야하겠습니다. 대자비심을 발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진정으로 봉축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예토(穢土)의 세계를 대자비심의 정토(淨土)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라는 사상(史上) 유래 없는 사태로 지구촌 인류가 거의 동시적으로 생사의 불안과 공포를 겪으면서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이고 모든 유형무형의 생명체가 하나라는 절실한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同體大悲思想)이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오늘부터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깊히 되새기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가르침과 실천만이 앞으로 인류가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대안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큰 위안이 되고 휴식처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에 가득차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으로 화하여서 일체중생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연등이 치유와 극복의 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불자들이 동체대비의 등불을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일상에서 배려와 양보, 자상함과 용서, 이해와 화합, 동정과 따뜻한 위로, 응원과 칭찬, 존중과 선심(善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원만구족하시기를 서원합니다.

화해와 소통의 새날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태양은 마냥 동녘을 밝힙니다.

오늘도 부처님 오시는 날
천지 어둠을 아침 햇살이 밝히듯 부처님을 맞아 사회의 어둠을 밝힙시다.

대지는 여전히 초목을 키우고
세상은 그렇게 뭇 생명의 놀이터입니다.
중생이 탐욕과 오만을 깨달아 참회하고
청청본성을 밝히면 주객은 저절로 어울리고
뭇 괴로움은 흔적을 감추어 안락이 깃듭니다.

남의 탓 앞서서 내 허물 고치고
내 자랑보다 남의 칭찬 먼저 합시다.
이념대립과 정쟁(政爭)이 혼란을 부추겨도
화쟁(和諍)으로 품어 안고 상보(相補)하면
세간사 중생고(衆生苦)도 정토로 돌아갑니다.

지면 관계상 봉축법어와 봉축사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